

## FPSO! 성공적인 4개월의 대장정

지난달 19일, 삼성 FPSO의 마지막 납품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지난 1월부터 시작되었던 작업으로 1763 FPSO 납품을 마지막으로 4개월 간의 대장정이 막을 내렸다.

슈퍼듀플렉스라는 특수재질로 인하여 돌발 변수가 수차례 발생하여 많은 돌발 작업과 철야 작업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슈퍼듀플렉스라는 재질에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사급수급 문제나 설계오작 부분 등의 시행착오도 순발력 있게 결정하고 문제의 상황을 미연에 잘 방지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기술력 축적의 많은 부분이 외주에 돌아갔고 다른 아이টে일에 비해서는 기술력 성장 부분이 두드러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우리 회사가 향후 기술 축적을 위해서는 테스크 포스트팀처럼 임시 팀이 아닌 프로젝트 전담팀의 조성이 시급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작업은 모듈유니트를 위한 전초전에 불과했다. 이것을 초속으로 삼아 탑사이드 모듈유니트에 대한 기술력을 축적하여 이 또한 대량 납품 할 수 있게 된다면 단위면적당 고부가 가치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처음 시도된 대량납품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만큼 다른 영업에도 좋은 밑거름이 되어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기약된다.



### 모두 하나가 된 '다선사우회 체육대회' 무사히 마쳐

지난 달 9일 다대중학교에서 열린 '2009 다선사우회 체육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직원 및 가족 총 7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의 참석율을 달성하며 진행되었다. 따뜻한 날씨만큼이나 푸근한 협력업체의 관심으로 음료수 등 체육대회 축하의 뜻을 전해 받을 수 있었다.

이날 체육대회에서는 축구경기, 피구경기, 족구, 줄다리기 등 다양한 종목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번외경기로 그 즐거움을 더했다. 그 중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시킨 것이 족구와 '별들의 전쟁'이었다. 족구는 대폭 확대된 포상금으로 예선전부터 결승전까지 최고의 열기를 보였다. 이벤트 축구경기인 '별들의 전쟁'은 고문이사과 대표이사의 참석 하에 나누어진 팀 편성에서 공을 전달하기 위한 선수와 공을 막지 않는 골키퍼의 모습으로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흥미진진했던 경기만큼 다양한 상품도 제공되어 관심

을 모았는데 추첨식으로 진행된 경품행사에서 1등 상품인 42인치 PDP TV는 2년 연속으로 영도 공장에게 돌아갔다. 그리고 목포공장에서 유일하게 참석한 직원이 가족과 함께 2개의 상품에 당첨되어 750분의 1이라는 확률을 이겨낸 에피소드도 전해졌다. 무엇보다 사고나 불미스러운 사건 없이 선례 중 가장 좋게 끝난 이번 체육대회에서는 공장별로 새롭게 발탁된 총무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지난해까지는 한명의 총무가 모든 것을 담당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각 공장별 총무와 진행요원의 협조로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었다.

돼지 콜레라라는 사회 문제 속에 편육 및 수육이 많이 남았던 점과 음식의 분배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어 아쉬움을 남기기도 하였지만 성황리에 마무리된 2009 다선 사우회 체육대회를 계기로 더 멋진 2010년 다선 사우회 체육대회를 기다려본다.



### 이란 SADRA 조선 우리 회사 방문!

지난 달 23일 우리 회사에 이란의 SADRA 조선의 Habib Jadidi 사장을 비롯한 Manoochehr Aghaee, Mohammadreza Roshanali 부사장 외 세 분의 특별한 방문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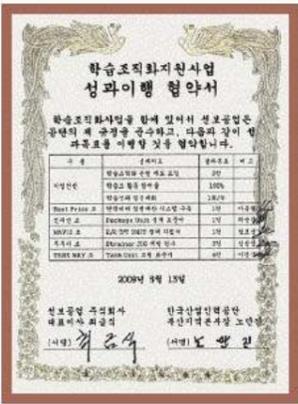
이번 방문은 이란에서 최대의 조선소 중 하나로 꼽히는 SADRA 조선과 우리 회사의 엔진룸 유니트와 오프쇼어 프로젝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SADRA 조선의 방문은 해양진출과 외국수출과 일맥상통하며 2010년 우리 회사 성장 동력 확보에도 큰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 방문이 앞으로의 새로운 인연으로 작용하여 우리 회사의 해양 진출에 보다 밝은 미래를 기대해 본다.



현장 혁신

학습조직화 학습조발대식



### 학습조직화 지원사업체 최종선정 및 제 1기 학습조 발대식 거행

지난 13일 본사 교육장에서 대표이사를 비롯한 유관기관 내빈, 학습조원들 등 약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제1기 학습조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학습조란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의 한 유형으로 근로자의 평생학습과 중소기업의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활동을 촉진, 지원하게 된다. 우리 회사는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시행하게 되었고 "학습조 활동지원"외에 학습 공간 구축, 현장 학습프로그램 도입 등 3년 동안 7개 유형에 대해 지원을 받게 된다.

천하여 학습조장으로 선발하였고 자율적 토론을 거쳐 학습주제와 학습조원을 구성하였다. 이들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스스로 세운 목표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매월 2회 이상 정기모임 세미나 등을 통해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오는 9월에는 사내 학습조성과 경진대회를 통해 그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대표이사는 학습조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학습조별 성과이행 목표를 재다짐 받고, 성과달성을 위한 제반사항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번 행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김강배 HRD팀장과 김상진 위원에 대한 내빈소개를 시작으로 학습조장 임명장 수여식, 성과목표이행협약서 교환식, 학습조 운영 마스터 플랜 소개, 각 학습조별 학습주제 및 목표, 운영계획 발표 순으로 거행되었다.

제1기 학습조는 평소 경영혁신 리더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5명을 추



회사 소식

인사고과 발표

### 승진을 축하합니다!

- 부장대우 → 부장**  
경영기획부 김창욱, 자재조달부 최동배, 설계4팀 박문영
- 차장 → 부장(을)**  
목포공장 박원석
- 과장(을) → 과장**  
영도공장 표종원
- 대리 → 과장**  
설계5팀 김갑진, 기술영업부 유무성
- 대리 → 과장(을)**  
목포공장 김덕현
- 계장 → 대리**  
자재조달부 이수원, 손정락, 설계팀 민병기, 2공장 김문철, 구평공장 김현우, 영도공장 김수환, 김지훈
- 계장대우 → 계장**  
설계팀 임기섭, 설계6팀 오창배, 영도공장 김탁현

- 4급 → 계장**  
자재조달부 서성식, 황지석, 기술영업부 박종혁, 경영기획부 이기환, 설계3팀 문종현, 설계4팀 김구영, 설계5팀 윤치호, 설계6팀 나소명, 설계2팀 장철호, 설계5팀 이순복, 설계4팀 박황수, 1공장 정치균, 구평공장 조영화, 영도공장 성창훈, 박현일, 목포공장 이경화
- 5급 → 4급**  
설계4팀 최진영, 구평공장 김유미, 설계6팀 이수진
- 7급 → 6급**  
설계4팀 신유철, 장성훈, 설계5팀 곽봉제, 설계6팀 허수
- 생산팀장 → 생산선입팀장**  
목포공장 정봉주
- 생산주임 → 생산팀장**  
목포공장 노성담
- 생산직사원 → 생산주임**  
1공장 김수환, 조숙희, 안태주, 오남기, 안병선, 신승훈, 장세열, 차상민, 2공장 김종민, 진정현

회사 소식

시상

### 09년 상반기 독서통신교육 성적 우수자 시상



우리 회사는 지난 13일 본사 교육장에서 "독서통신교육 상반기 성적 우수자"에 대한 시상을 가졌다. 본사에서는 기술영업팀 이주일 부장을 비롯한 총 10명이 수상하였으며, 부상으로는 문화상품권이 수여되었다. 특히 이날 기술영업팀 김미란 사원과 자재조달팀 김혜민 사원은 지난 해에 이어 2회 연속 성적 우수상을 수상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대표이사는 "바쁜 일과 후 소중한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본인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독서통신교육에 동참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수상자들을 축하하며, 좀 더 많은 인원들이 하반기에는 성적 우수상을 수상하길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최홍렬 상무의

### 이 한편의 책 일본전산 이야기

회사가 무너지면 영원히 쉬게 된다. 불황이라 한탄할 시간에, 차라리 일을 하라!

이 책은 '즉시 한다, 반드시 한다, 될 때까지 한다' 무섭도록 집요한 통쾌할 정도로 시원한 일본전산의 '나가모리식' 경영비법 및 나가모리 시계노부라는 한 독특한 경영자의 머릿속도 들여다 보고 있는 책이다.

일본, 나아가 전 세계곳지의 기업들이 왜 그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지, 왜 '우리회사도 좀 살려달라'고 자문을 구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담고 있다. 답답한 속을 뽐낼 여줄 직설적이고도 실천적인 해법이 '막연하고 막막하기만 한' 기업 현장으로 찾아간다!

위기를 뛰어넘으려면 기본기부터 생각, 실행의 패턴까지... 모조리 재무장하라! 단군 이래 최대의 불황이라 일컫는 지금, 위기를 돌파할 '출구'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나아질 기미가 없는 외부 요인을 원망하며 앉아만 있을 것인가? 지금, 그럴듯하고 거창한 경영의 이론 따위는 쓸모가 없다. 우리에게 생존의 무기, 불황을 이길 진검승부의

현장 노하우가 지금 절실히 필요하다.

'학력 파괴', '연공서열 파괴', '능력 본위 무한경쟁'을 모토로 하는 실용주의 경영술, '교토식 경영'. 그 중에서도 가장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일본 유수의 기업 총수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배우는 곳이 바로 '일본전산'이다.

그들은 오일쇼크와 10년 불황이라는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막대한 기술개발 비용과 탁월한 경쟁력이 필요한 하드웨어 산업만을 고수해 왔다. 모터라는 단 하나의 키워드에 집중해, 최고의 기술력과 용병술로 일본 뿐 아니라 세계 업계를 장악한 이들의 성공 뒤에는 '나가모리 시계노부'라는 명장(名將)이 있다.



추천 여행지

김해 천문대



별! 볼 일 있네?  
가족과 함께 떠나는 별자리 여행,  
김해천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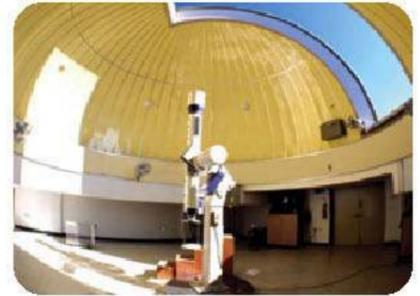
김해시의 내외동에서 동쪽산을 보면 마치 산이 알을 품은 듯한 모습의 신기한 건물인 산 꼭대기에 보인다. 이 건물이 바로 영남지역에서 유일한 시민천문대인 김해천문대이다. 천체와 우주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오는 사람들에게 낭만과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2002년 개관하였다.

김해시를 남쪽으로 싸안고 있는 분성산 중턱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교불교불 포장도로를 걸어서 오르면 시가지와 주변의 트인 전경을 구경하는 맛이 일품이다. 고비마다 계절 별 별자리판과 전통 천문 관측기구를 설치해 천문대 오르는 길이 심심하지 않게 되어있다. 어스름이 내릴 무렵 올라간다면 천문대로 오르는 길은 말 그대로 밤하늘로 가는 길이다.

알 형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전시실인데 전시실 내부에는 11개의 주요 전시물이 자리하고 있고 나선길을 따라가면 전망대를 만나볼 수 있다. 전시실에서는 지구의 공전과 자전, 개기일식 실험장치, 천문역사 매직 비전에서 사계절 별자리와 별자리 밝기, 천체망원경 구조 등까지 다양한 전시물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호기심을 자극한다.

그러나 뭐니 뭐니해도 가장 설레는 것은 별을 보는 일. 전시실 다음에는 천체투영실로 향한다. 천체 투영실에서는 천장에 설치된 지름 8m의 반구형 스크린을 통해 밤하늘의 별을 재현해주고 있다.

뒤로 젖혀지는 폭신한 의자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노라면 깊은 숲 속 같은 밤하



밤하늘의 별을 문득 올려다 본적이 있는가? 하지만 요즘은 별을 보기 위해 하늘을 올려다 보아도 우리는 밤하늘에 떠있는 총총한 별빛을 보지 못하고 산다. 광해라고 일컫는, 별빛만큼이나 많은 도시의 불빛 때문이다. 그래서 아득한 빛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별들을 올려다보며 자신의 성찰의 시간을 우리는 가질 수 없는 건지도 모른다.

늘에서 별이 쏟아져 내린다. 황홀한 장면이 아이들의 감탄사가 연이어 이어진다.

천문대가 위치한 분성산 정상에서는 김해시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 특히 별을 관측할 수 있는 밤에 내려다본 김해시의 야경은 매우 절경이다. 천문대뿐만 아니라 김해 야경의 매력에 빠져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야경 뿐만 아니라 날씨 맑은 날 잘 맞추어 간다면 천체망원경을 통해 신비로운 우주의 세계도 경험해 볼 수 있다고 한다.

전시실은 무료로 개방되어 14시부터 22시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일정 비용을 내면 망원경 조작프로그램 실내 별자리 프로그램 천체관측 프로그램도 참여해볼 수 있다. 주의해야할 점은 예약을 하지 않는 경우 매진이 되어 참가하지 못하거나 오래 기다려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인터넷(<http://astro.gsiseoul.or.kr>)으로 예약을 하면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다.

명소에 가서 수백 년 된 나무를 보면 자연과 생명에 대한 경외감이 느껴지듯이, 무수한 별들이 총총히 수놓아진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누구나 마음에 다 담을 수 없는 끝 모를 신비감에 젖어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 순간, 더 한층 우리의 마음이 성장하는 것이다. 화창한 6월, 아이들과 함께 혹은 연인끼리, 도시의 불빛을 떠나 자연의 별빛을 따라 길을 나서보자. 별하늘에 추억과 별하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회사 소식

직원 복지를 위한 교육

가족 친화 교육



지난 13일 을숙도문화회관에서 부부와 예비 결혼자를 대상으로 '직장으로 찾아 가는 가족 친화 교육'이 실시되었다.

부산시청 여성정책과에서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부부간의 행복기술론, 자녀들 경제관념 바로잡기, 나는 내 가정의 CEO라는 타이틀로 3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교육을 마친 후 참가자들의 반응이 좋았고 한 직원은 "좋은 교육이었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만큼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며 이번 교육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냈다.



회사 소식

직원 복지를 위한 교육

금연 캠페인 교육



흡연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각 사업장 금연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사내 흡연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사하구 보건소 주최로 '2010년 금연사업장을 만드는' 목표하에 진행된다.

지난 14일을 시작으로 금연 홍보, 금연교육, 이동클리닉을 통해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인 이번 금연운동은 우리 회사의 금연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해내 보다 건강한 회사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협력업체탐방

동국금망 작지만 강한 회사, '동국금망'

'주인 된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자, 주인 된 생각으로 작업을 해나가면 제품 또한 헛되지 않을 것이고 직원도 모두 자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아무진 사훈 아래 성장해 오고 있는 동국금망은 1988년 설립된 CNC 타발금망, 필터, 스트레이너 전문업체이다. 설립부터 우리 회사와 함께해오고 있는 동국금망은 어느덧 20여년이 넘는 특별한 인연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김광봉 대표이사 "창업부터 도움을 많이 받아왔고 선보와는 형제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도움도 많이 받았지만 경영면이나 사내 복지 면에서 본받을 점도 많다고 생각 된다"며 선보와의 오랜 인연을 이야기 했다.

변화의 길목에서

15년 전 타공 시스템을 CNC화하여 자체개발한 것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충분했지만 변화를 자주 일궈내지 못해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제품 품질을 바탕으로 어느 누가 작업을 해도 완제품이 나올 수

있는 현장 표준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김광봉 대표이사는 "초보자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어디 내놔도 최상이 될 수 있는 제품을 만들 것이다. 아직까지 어려움이 많지만 지금처럼 계속해 나가다 보면 분명 이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누구나 들어오고 싶어 하는 회사, 작지만 탄탄한 회사로, 근무하면서 부러울 것 없는 회사를 만들고 싶다는 포부도 내보였다.

앞으로도 내실 있게 성장해나가는 선보와 함께 더불어 성장해 나가겠다는 동국금망. 현재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하나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겠다는 동국금망의 아무진 꿈이 널리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생생 현장의 소리

짜릿한 내 인생의 점수 이현우 대리



작년 1월부터 가동되기 시작하여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온 2공장에서 생생 현장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었다. 이번 생생 현장의 주인공은 어느덧 입사 5년차의 2공장 품질보증팀 이현우 대리다. '품질보증'이라는 것이 제품에 대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다 보니 타부서와 마찰도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생산부서에서부터 구매부서까지 '마찰(?)의 왕'인 품질보증팀, "고객의 눈으로 하나하나 살펴야하고 품질을 우선시 하다 보니 일정 문제도 발생하게 되고 여러 부서와 마찰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어쩔 수 없는 부분에 있어 마찰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안타까울 때가 많다"고 이야기 했다. 선보가 첫 회사라는 그는 입사했을 때 계획은 '무조건 3년만 버티자'였다.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시작이자 전환점인데 그것도 버티지 못한다면 사회생활을 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3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였지만 지금까지 선보라는 회사에 매력을 많이 느꼈고, 일을 해나가면서 선보가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니 내가 도움이 되는 느낌도 들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업무에만 충실하자고 책임감 있게 시작했는데 앞으로 지켜나가야 할 시간에는 좀 더 도전적이고 창조적으로 해나 갈 것이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그는 평소에 자신을 60점 인생이라 생각한다고 한다. 좀 더 분발해야 할 때는 위의 40%를 보고, 회의감이 느껴질 때는 밑의 60%를 보고 마음을 다시 잡고 한다고... 남은 시간동안 더 노력해서 70점짜리 인생을 만들 것이라는 그의 눈빛은 벌써 100점이었다.



선보 칭찬 릴레이

제 37호 주인공 | 박삼주 팀장

칭찬 릴레이는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선보에 정착되기를 바라며 펼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그가 만들어가는 '선보안전지대'



Q 칭찬 릴레이 제 37호 주인공으로 선정된 소감과 주변의 반응은?

갑자기 칭찬 릴레이 주인공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전 받자 당황스러운 마음이 크네요. 현장에 같이 일하시는 분 중에 받아야 할 분이 더 많은데 제가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우선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다들 저보다 더 열심히 해서 제가 주인공이 되도 되는가 싶은데 제가 일찍 와서 늦게 퇴근하는 모습과 안전관리 하나는 철저히 하는 모습을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팀원들이 잘 따라주니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Q 평소 어떤 마음가짐으로 근무하세요?

선보에서 근무한지는 1년 정도 되었는데 탱크탑과 유닛을 주로 담당하고 있어요. 특히 탱크탑은 기술력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모르는 것이 많아 남보다 일찍 와서 많이 훑쳐보고, 많이 물어보면서 익혀나갔죠.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일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되니 세심함이 더 강조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유닛 오작동이나 A/S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최대한 일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혹시라도 사고가 날까 제일 걱정인데 사고라는 것이 순식간에 나는 것이라 늘 주의하고 신경 쓰고 있어요. 내부인 뿐만 아니라 외부인도 있으니 안전관리가 최우선이라 생각하고 '무재해 365일 가야하지 않겠어요? 가족이 행복한 모습을 생각하며 늘 근무하는데 우리 선보 식구들 모두 안전하고 화목한 근무환경이 될 수 있도록 안전에 더 힘쓰고 노력해나가고 있어요.

Q 제 38호 칭찬릴레이의 주인공을 추천한다면?

주위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고민이 많이 되네요. 다음 주인공으로 항상 일찍 출근해서 자재 준비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던 정수 Eng의 김명운씨를 추천합니다.

축하합니다!

본사 생일	구영 생일
최경명(6/15)	생산관리 김지훈(6/28)
오세진(6/19)	대한ENG 김광근(6/1)
이동하(6/23)	공진일(6/7)
공진일(6/12)	육이진(6/7)
설계 장호신(6/10)	서경물류팀 임역민(6/10)
황인환(6/21)	하림테크 유규태(6/4)
장현수(6/23)	
박규태(6/15)	영도 생일
배민반 하현(6/5)	지재운영 조연주(6/20)
권병철(6/6)	신각생산업 김지훈(6/14)
순해공업 장국현(6/11)	
김태식(6/9)	입사기념일
유성산업 최우태(6/21)	부사장님 최상식(6/2)
김재호(6/16)	경정기획 안정빈(6/3)
보온반 김병호(6/10)	설계2팀 황인환(6/9)
금천산업 남영호(6/12)	설계4팀 최진영(6/23)
	박환수(6/23)
2공장 생산관리 김태호(6/6)	고객지원 김동선(6/1)
신터ENG 신동기(6/21)	1공장 안태주(6/19)
금강 박삼주(6/13)	정창선(6/2)
신일공업 박희수(6/7)	김대관(6/9)
	신경선(6/24)
3공장 백규수(6/21)	김형권(6/24)
	최철(6/16)
	노승태(6/1)
	김재희(6/1)
	김종민(6/2)



틀린그림찾기 5군데

